

광주시 취학아동 1월 4~5일 예비소집

예비초등 1만3050명·공지사항 확인...이유없이 예비소집 불참 '경찰 수사'

광주지역 2023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아동 예비소집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각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학교는 총 155개교(국립 1개교·공립 150개교·사립 4개교)이다.

취학 대상자는 2016년에 출생한 적령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7

년생 아동, 전년도 취학 유예 아동 등 1만3050여 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절차(등기우편·팩스·이메일·학교 내 접수함 등)에 따라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3월 재개교하는 경양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사랑방에서 실시된다. 관

련 안내문은 광주운암초등학교 등 인근 4개 초등학교 홈페이지 팝업존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증명서(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명서류), 학교별 기타 요구 서류 등이다.

비대면으로 예비소집 참여를 희망하는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재원증명서를 예비소집 기간에 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으

로 제출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미응소할 경우 소재 확인 및 취학 독촉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일정 및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 학생 규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조정되거나 다를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주환경공단, 청렴 시민감사관 위촉

공단 내부 부패 방지·취약 분야 감시·청렴문화 확산



광주환경공단이 청렴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 시민감사관은 시민 관점에서 공단 자체 감사와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고문 역할을 하는 등 공단 내부의 부패를 방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공단은 위촉된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사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요구권, 공단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과 제출 요구권, 중감감사에 직접 참여해 발견된 부조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권 등을 가지게 된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2년 동안 공단 운영상 제도 개선과 공단 운영 모범 사례 발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일상 기자

남도학숙,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 726명 모집

동작구 1학숙 423명·은평구 2학숙 303명...내달 18일까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광주·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서울 남도학숙의 2023년 신규 입학생 726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숙별로 제1남도학숙(동작구) 423명, 제2남도학숙(은평구) 303명으로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시·도별로는 광주시 362명, 전남도 361명, 제2남도학숙 장애인 3명으로, 장애인실생 학생 편의를 위해 시·도 구분 없이 입사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28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이다.

대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신입생이나, 2023년 1학기에 복학할 학생은 이번 신규 입사생 모집에 지원해야 내년 3월부터 학숙을 이용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023년 1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류를 갖춰 보호자 주민등록지인 광주시청 또는 전남도청 시·군에 우편접수 하거나, 남도학숙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신입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

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활정도 100% 반영하고, 재학생은 학교성적 30%, 생활정도 70%를 반영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등은 가점 혜택이 있다.

입사대상자와 예비자 순위는 2023년 2월 6일 남도학숙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결원이 생기면 예비자 순서대로 입사할 수 있다.

현재 1454명(제1학숙 850명·제2학숙 604명)의 대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월 16만원의 저렴한 이용료와 장학제도,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조일상 기자

북구,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모집

북구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인원은 공공근로 22개 사업 32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8개 사업 98명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사업 참여자는 다양한 기관에 배치돼 행정 보조, 환경 정비,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 15~40시간 근무에 시급 9620원을 받는다.

광산구, 시민 삶 바꾸는 '현장소통' 안착

행정 시각 해소·신뢰 제고...시민 97% '만족'



민선8기 광산구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이 민생현장 속 시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소통창구로 정착했다. 특히, 구청장과의 격의 없는 소통, 이를 통한 생활 속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변

화에 시민이 느끼는 만족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광산구정'을 내걸고 취임 후 지금까지 매주 2회 이상씩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퇴근시간대 평동역에서 첫 경청 구청장실을 연 이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거리 등을 다니며 직접 시민과 대면해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총 40회(12월 27일 기준). 이를 통해 정책제안과 생활 속 민원사항 등 500여 건에 달하는 시민 목소리를 접수했다.

광산구가 최근 시민 23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2%로 참여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청장과의 격의 없는 소통(59.2%)과 건의(제안) 사항 반영을 통한 불편사항 감소(25.7%)가 주요한 만족 사유였다. 실제 박병규 구청장 취임장은 자유롭게 편안한 소통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리라 현장소통'을 고집하고 있다.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누구나 1:1로 구청장과 대화하며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어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접수한 내용은 관련 부서로 전달, 반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 결과를 반드시 제안한 시민에게 알려주고 있다.

시민 목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노력은 조금씩 주민 생활에 변화를 만들어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몰적 불법주정차 CCTV 운영을 완화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경찰청,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단속시간, 주말과 공휴일 운영 방식을 조정할 것이 대표적이다.

/이동기 기자

'광주교육청 방학 무상급식' 겨울도 무산

시교육청, 교육지원 대상자 지원...3억원 편성

광주시교육청이 여름 방학 때 무산된 '방학 중 무상급식'을 겨울에 재추진했지만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겨울 방학기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점심 무상급식을 최종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학 중 급식은 초등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학교별 도시락 지급·개인도시락 지원 등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겨울방학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

학생은 현재 6159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점심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지급한다.

교육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 시교육청이 간식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 방학에도 무상급식은 추진되지 않지만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 여름 방학 때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평가 우수기관

전남도교육청이 2022년 지방교육재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에서 학교회계 우수사례에 뽑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회계 목적사업비 교부방식 개선, 단위학교 이·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지원이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박종배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